



이제는 차세대 지능형 DVR과 고화질 HD DVR 시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진화에 더욱 박차

김기성 시류인도 영업 총괄 이사

자신 10여년간 고성능, 고화질 CCTV 개발에 힘써온 시류인도(대표 김기희)에서 새롭게 지능형 CCTV 제품과 HD CCTV 제품이 출시돼 관련 업계와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기성 시류인도 영업 총괄 이사는 “예전처럼 사람이 말일로 CCTV 모니터만 차단을 하는 일”이라며 “설치점은 장래에 지능형 DVR의 인공지능을 통해 무인 감시 방식으로 CCTV 운영체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에 맞춰 시류인도는 지능형 CCTV ‘센트리(Sentry) 5465N’과 ‘943SM’ 제품을 출시했고 이 제품들은 각각 16채널, 32채널의 감시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지능형 영상 감지 기능은 기본 2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추가로 최대 8채널 까지 증설이 가능하다”고 치시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능형 감지 기능에는 영상의 설정된 영역에 수상한 차가 침입을 경우 감지하는 ‘침입 감지’ 기능과 특

정 시간동안 배회할 경우 감지하는 ‘배회 감지’ 기능, 화재 발생시 이를 감지하는 ‘화재 감지’ 기능, 그리고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 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기성 이사는 “시류인도의 자동화 CCTV 제품은 푸오피스네트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올해 일산 컨페서스에서 개최된 ‘세콘(ISECON) 2013’에 출품돼 선명한 화질과 성능, 그리고 뛰어난 경제 인수율을 보인 차지형 감지 기능으로 전시회를 방문했던 많은 참관객의 카메라 화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기성 이사는 “지능형 CCTV가 이정도로 대중의 기대를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솔루션으로 더 뛰어난 지원형 제품 개발을 위해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오피스네트의 방송용 영업부를 바탕으로 지능형 제품 보급에도 일정을 실 계획이라는 것.

한편 시류인도는 지능형 CCTV의 보급과 충보수를 위해 전동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에는 지능형 CCTV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용방법도 감상할 수 있다.

시류인도의 고화질 OCTV 제품군인 HD CCTV 제품에는 HD-SDI 방식의 센트리 9016 제품과 F2기반의 메가픽셀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HD-NVR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이사는 “이제 흐릿한 화질의 아날로그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뛰어난 화질의 HD CCTV 시장으로 급 솔이된 전환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HD 제품을 출시해 HD CCTV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류인도 센트리 9016는 HD-SDI 규격의 물-물 HD 카메라를 통해 기존에 설치된 동체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뛰어난 화질의 물-물 영상을 최대 16채널까지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나아가 코엑스 기반의 IP 와이드 영상과 프로그램스 스 턴방식을 사용해 뛰어난 화질로 세밀한 영상 분석이 가능하는 점은 물론 최대 12채널의 모니터 입력과 다양한 리코딩 모드(연속녹화 모션파악, 스케줄녹화, 센서녹화 및 센서 8방일, 일정 재생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센트리 9016는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으로 이미 설치돼 있는 종족 케이블의 교체 없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인 열악한 화질의 CCTV 시스템을 고성능, 고화질의 HD-DVR 시스템으로 바로 설치하거나 기능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확실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오래되고 낡은 아날로그 CCTV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류인도의 HD-NVR 제품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화질의 HD 와이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입력되는 카메라의 채널에 따라 16채널 HD-NVR인 HD-NVR 32로 구성되어 고성능 네트워크 전송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뛰어난 화질의 HD 영상 데이터는 아무런 걸림 없이 영상을 표시하고 다양한 녹화모드(연속녹화, 모션 녹화, 센서 녹화, 긴급 녹화 등)를 통해 영상을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다.

김기성 이사는 “시류인도의 HD-NVR 제품은 기존에 관계없이 디지털 신호를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고 HD-NVR 32의 경우 최대 32채널의 해상도 P 카메라 및 NVS와 연결해 고성능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HD 스트리밍 솔루션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연结되는 P 제품의 원격 설정 및 관리, 상터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은 물론 영상 재생시 다양한 감색 모드(액션 감색, 오브젝트 감색, 파노라마 감색 등)로 HD-NVR 32의 경우 최대 32채널 동시 감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자지도(map) 기능으로 현재 치도 위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 일정 등의 위치를 지정해 해당 기기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

시류인도 HD-NVR 제품은 이러한 특징으로 현재 관공·금융·군대·대형 공단·이트단지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기성 이사는 “세계적으로 활용한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화질 HD-NVR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 활용분야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며 “시류인도는 HD-NVR 솔루션은 현재 세계에서도 7분위인 DVR 기능에서 한층 더 발전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로 진화하도록 더욱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성 이사는 “시류인도는 앞으로 더 나은 영상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박차를 기할 것이며 한 차원 높은 영상보안 시스템의 보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